

복지인의 노래

1. 우리들은 복지인

착하고 좋은 사람들, 사회복지가 좋아~
뜨거운 가슴으로 산다네 우리들은 복지인~
가는 길 어려워 보여도 내가 택한 나의 인생~
열정과 긍지가 있다네 우리들은 복지인~
때로는 힘들어도 우리들은 복지~인~
지지와 격려를 통해서 다시 힘을 내리라.
라랄라 라랄라 라랄라 라랄라라 라랄랄라
라랄라 라랄라 라랄라 라랄라라라 라랄~라
우리는 복지인 자랑스런 복지~인~
열정과 긍지가 있다네 우리들은 복지인~
열정과 긍지가 있다네 우리들은 복지인~
우리들은 복지인~

몽개구름

이 땅이 끝나는 곳에서 몽개구름이 되어
저 푸른 하늘 벗삼아 훨훨 날아다니리라.
이 하늘 끝까지 가는 날 맑은 빗물이 되어
가만히 이 땅에 내리면 어디라도 외로울까
이 땅의 끝에서 모두 다시 만나면
우리는 또다시 둥글게 몽개구름 되리라.
이 하늘 끝까지 가는 날 맑은 빗물이 되어
가만히 이 땅에 내리면 어디라도 외로울까
이 땅의 끝에서 모두 다시 만나면
우리는 또다시 둥글게 몽개구름 되리라.
우리는 또다시 둥글게 몽개구름 되리라.

복지인의 구호

사회복지 - 꿈과 열정으로!
사회복지 - 땀과 눈물로! (땀과 웃음으로!)
우리는 - 복지인!
우리는 - 복지인!

영원히 - 복지인!
사회복지 - 나의 꿈, 나의 인생, 마이웨이~

힙합 버전 & 조용한 버전

구호준비, 예~~~,
쿵쿵 짹, 쿵쿵 짹,
하나 하면 사, 둘 하면 복,
셋 하면 사 회 복 지 예~,
사회복지 꿈과 열정 예~,
사회복지 땀과 눈물(또는 땀과 웃음) 예~,
우리는 복지인,
우리는 복지인,
영원히 복지인, 예~~~

2. 감사송

- ① 길가에 가로수 감사 스치는 바람 감사. 쏟아지는 빗속에 감사 불벌더위도 감사. 한적한 들길에 감사 복잡한 도시 감사. 멋진 친구 우정 감사, 좋은 사람 만남 감사.
- ② 든든한 아침밥 감사 맛난 점심도 감사. 중간중간 간식 감사 푸짐한 저녁 감사. 볼록 나온 배도 감사 먹을 것 주심 감사, 먹어도 배고파 감사 잘 먹고 잘 싸 감사. 김상진 작사
- ③ 학창시절 배움 감사 꿈과 희망에 감사. 우정과 낭만에 감사 땀과 눈물도 감사. 지지와 격려에 감사 도전과 자극 감사. 고생도 즐기며 감사 사회사업 좋아 감사.

3. 당신을 응원합니다.(MC용 곡)

나무 사이로 비치는 눈부신 햇살처럼
꿈을 위해 도전하는 당신을 응원할게요~
때로는 지치고 힘든 날도 오겠지만
그럴 때마다 이겨내는
당신의 눈부신 활약 기대할게요!

- ① 실패 두려워 마세요~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도전하지 못한 비겁함은
더 큰 상처로 내 맘속에 다가오니까요~

②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샘물이 있기 때문이죠
 신께선 어딘가에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놓으셨대요~
 나무 사이로 비치는 눈부신 햇살처럼
 꿈을 위해 도전하는 당신을 응원할게요~
 때로는 지치고 힘든 날도 오겠지만
 그럴 때마다 이겨내는
 당신의 눈부신 활약 기대할게요!

4. 힘내라 맑은 물!

손이 시리면 따스히 만져주마. 추운 날이면 두 볼
 을 감싸주마. 너무 힘들거든 내게 기대오렴. 눈
 물 나거든 내 품에 안기렴. 냇물이 흘러흘러 강으
 로 가거라. 맑은 물살 뒤척이며 강으로 가거라.

힘을 내거라 강으로 가야지. 힘을 내거라 바다로
 가야지. 흐린 물줄기 이따금 만나거든 피하지 말
 고 뒤엎쳐 가거라. 강물이 흘러흘러 바다로 가거
 라. 맑은 물살 뒤척이며 바다로 가거라.

힘을 내거라 강으로 가야지. 힘을 내거라 바다로
 가야지. 흐린 물줄기 이따금 만나거든 피하지 말
 고 뒤엎쳐 가거라. 강물이 흘러흘러 바다로 가거
 라. 맑은 물살 뒤척이며 바다로 가거라.

냇물이 흘러흘러 강으로 가거라. 맑은 물살 뒤척
 이며 강으로 가거라. 강물이 흘러흘러 바다로 가
 거라. 맑은 물살 뒤척이며 바다로 가거라.

5. 꼴찌를 위하여

지금도 달리고 있지 하지만 꼴찌인 것을
 그래도 내가 가는 이 길을 가야 되겠지
 일등을 하는 것보다 꼴찌가 더욱 힘들다
 바쁘게 달려가는 친구들아
 손잡고 같이 가보자

보고픈 책들을 실컷 보고 밤하늘의 별님도 보고
 이산 저 들판 거닐면서 내 꿈도 지키고 싶다
 어설플 일등보다는 자랑스런 꼴찌가 좋다
 가는 길 포기하지 않는다면
 꼴찌도 괜찮은 거야

보고픈 책들을 실컷 보고 밤하늘의 별님도 보고
 이산 저 들판 거닐면서 내 꿈도 지키고 싶다
 어설플 일등보다는 자랑스런 꼴찌가 좋다
 가는 길 포기하지 않는다면
 꼴찌도 괜찮은 거야
 꼴찌도 괜찮은 거야
 가는 길 포기하지 않는다면
 꼴찌도 괜찮은 거야

6. 아름다운 세상

문득 외롭다 느낄 땐 하늘을 봐요
 같은 태양아래 있어요 우린 하나예요
 마주치는 눈빛으로 만들어가요
 나지막이 함께 불려요 사랑의 노래를

혼자선 이룰 수 없죠 세상 무엇도
 마주잡은 두 손으로 사랑을 키워요
 함께 있기에 아름다운 안개꽃처럼
 서로를 곱게 감싸줘요 모두 여기 모여

작은 가슴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세상

작은 가슴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세상

7. 년 할 수 있어

후회하고 있다면 깨끗이 잊어버려
 가위로 오려낸 것처럼 다 지난 일이야
 후회하지 않는다면 소중한게 간직해
 언젠가 웃으며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너를 둘러싼 그 모든 이유가
 견딜 수 없이 너무 힘들다 해도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 있으니

어려워 마 두려워 마 아무것도 아니야
 천천히 눈을 감고 다시 생각해 보는 거야
 세상이 너를 무릎 꿇게 하여도
 당당히 네 꿈을 펼쳐 보여줘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 있으니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제 바로 너야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 있으니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 있으니

8. 사노라면

사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 밀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짝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비가 새는 판잣집에 새우잠을 잔대도
고운 님 함께라면 즐거움지 않더냐
오순도순 속삭이는 밤이 있는 한
한숨일량 쉬지 말고 가슴을 짝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9. 나는 문제없어

이 세상 위에 내가 있고
나를 사랑해 주는 나의 사람들과
나의 길을 가고 싶어[가고 싶어]
많이 힘들고 외로웠지 그건 연습일 뿐야
넘어지진 않을 거야 나는 문제없어
짧은 하루에 몇 번씩 같은 자리를 맴돌다
때론 어려운 시련에 나의 갈 곳을 잃어가고
내가 꿈꾸던 사랑도 언제나 같은 자리야
시계추처럼 흔들린 나의 어릴 적 소망들도
그렇게 돌아보지 마 여기서 끝낼 수는 없잖아
나에겐 가고 싶은 길이 있어
너무 힘들고 외로워도 그건 연습일 뿐야
넘어지진 않을 거야 나는 문제없어

10.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커다란 슬픔일수록 빨리 잊고
작은 기쁨일수록 크게 웃고
비록 너와 나 가진 것 없어도

가슴엔 큰 희망으로
동지의 허물일수록 빨리 잊고
나의 잘못일수록 엄격하게
비록 너와 나 가진 것 없어도
가슴엔 큰 사랑으로

우리 살아온 날들보다 더 많은 날 남아있지
최선을 다해 살아온 날 생각하면
가다가 지쳐도 다시 일어설 거야
오늘은 우리들 가는 길에
모진 비바람 불어와도
내일은 또 다시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

우리 아파 온 날들보다 더 많은 날 남아있지
우리 할 수 있는 많은 일들 생각하면
가다가 지쳐도 다시 일어설 거야
오늘은 우리들 가는 길에
모진 비바람 불어와도
내일은 또 다시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
내일은 또 다시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

11. 바위처럼

바위처럼 살아가 보자
모진 비바람이 몰아친대도
어떤 유혹의 손길에도 흔들림 없는
바위처럼 살자꾸나
바람에 흔들리는 건
뿌리가 얇은 갈대일 뿐
대지에 깊이 박힌 저 바위는
군세계도 서 있으리
우리 모두 절망에 굴하지 않고
시련 속에 자신을 깨우쳐 가며
마침내 올 '복지 세상' 주춧돌이 될
바위처럼 살자꾸나

12. 짧은 그대

① 거치른 들판으로 달려가자
젊음의 태양을 마시자
보석보다 찬란한 무지개가 살고 있는
저 언덕너머 내일의 희망이 우리를 부른다
사회복지 잠 깨어 오라

사회복지 잠 깨어 오라
아아 사랑스런 사회복지
아아 태양 같은 사회복지, 사회복지~~

② 미지의 신세계로 달려가자
젊음의 희망을 마시자
영혼의 불꽃같은 숨결이 살고 있는
아름다운 강산의 꿈들이 우리를 부른다

사회복지 잠 깨어 오라
사회복지 잠 깨어 오라
아아 사랑스런 사회복지
아아 태양 같은 사회복지, 사회복지~~

13.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대 어깨 위에 놓인 짐이 너무 힘에 겨워서
길을 걷다 멈춰진 그 길가에서
마냥 울고 싶어질 때
아주 작고 약한 힘이지만 나의 손을 잡아요
따뜻함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어무만져 줄게요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운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때론 내가 혼자뿐이라고 느낀 적이 있었죠
생각하면 그 어느 순간에서도
하늘만은 같이 있죠
아주 작고 약한 힘이라도 내겐 큰 힘 되지요
내가 올 땐 그대 따뜻한 위로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운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에서 오는 사람들
모두다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운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운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14. 꿈이 더 필요한 세상

나는 누구일까 너는 누구일까
우리들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을까
나는 누구일까 너는 누구일까
우리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들의 꿈은 어디쯤에서
예쁜 날개를 갖게 될까
삶이 아무리 힘겨워도 꿈을 잃지 말자
친구여 꿈꾸며 사세 친구여 사랑하며 사세
달린 마음의 빗장을 열고 사는듯이 살아보세
친구여 무얼 바라는가 친구여 무얼 그리는가
우리들의 꿈과 사랑은 아주 가까이 있다네
우리 가는 길에 부는 바람이
몹시 사납고 거세어도
친구여 이겨나가세 손에 손을 잡고
친구여 이겨나가세 손에 손을 잡고
손에 손을 잡고 손에 손을 잡고

15. 나이 서른에 우린

나이 서른에 우린 어디에 있을까
어느 곳에 어떤 얼굴로 서 있을까
나이 서른에 우린 무엇을 사랑하게 될까
젊은 날의 높은 꿈이 부끄럽진 않을까
우리들의 노래와 우리들의 숨결이
나이 서른엔 어떤 뜻을 지닐까
저 처진 들녘에 피어난 고운 나리꽃의 향기를 나
이 서른에 우린 기억할 수 있을까
나이 서른에 우린 어디에 있을까
어느 곳에 어떤 얼굴로 서 있을까
나이 서른에 우린 무엇을 사랑하게 될까
젊은 날의 높은 꿈이 부끄럽진 않을까
우리들의 만남과 우리들의 약속이
나이 서른엔 어떤 뜻을 지닐까
빈 가슴마다 울려나던
참된 그리움의 북소리를
나이 서른에 우린 들을 수 있을까
나이 서른에 우린 들을 수 있을까

16.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언덕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타는 기슭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아 아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 주리라
아 아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 주리라
아~~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17. 상록수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온누리 끝까지 맘껏 푸르다
서럽고 쓰리던 지난날들도
다시는 다시는 오지 말라고
땀 흘리리라 깨우치리라
거치른 들판에 솔잎되리라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18.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a song to sing, to help me
cope with anything.

If you see the wonder of a fairy tale, you
can take the future even if you fail.

I believe in angels, something good in
everything I see. I believe in angels. When
I know the time is right for me, I'll cross the

stream -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a fantasy, to help me
through reality.

And my destination makes it worth the
while pushing through the darkness still
another mile.

I believe in angels, something good in
everything I see. I believe in angels. When
I know the time is right for me, I'll cross the
stream. I have a dream. I'll cross the stream
- I have a dream : Abba

19. 바보 이야기 (양원석 글, MC용 작곡)

① 어떤 바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네.
한 어르신이 바보에게 말씀하셨지
마당에 있는 화단에 매일 물을 주라고
바보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물을 주었네.
심지어 비가 오는 날에도,
바보처럼 우직한 사람이~고~ 싶네.
주변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개의치 않고,
자신의 사명을 따라 묵묵히 길을 가는 사람도 필
요함을 깨달았다네.

② 비가 오면 굳이 물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
성실하기 때문에 어르신 말씀 들었네.
때론 바보라는 소리도 들었지만,
꾸준히 하루하루 물을 주어 보살폈네.
심지어 비가 오는 날에도,
바보처럼 우직한 사람이~고~ 싶네.
주변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개의치 않고,
자신의 사명을 따라 묵묵히 길을 가는 사람도 필
요함을 깨달았다네.

바보처럼 우직한 사람이~고~ 싶네.
주변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개의치 않고,
바보란 소릴 들어도 그것이 마땅하면
바보란 이름으로 그 길을 따르네
바보란 이름으로 그 길을 따르네

바보가 가꾼 화단은 어느 누구의 화단보다
아름답게 꽃피웠네. 정말 아름다웠네
정말 아름다웠네 정말 아름다웠네